

20
26

두산연강예술상

20
26

두산연강예술상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 두산그룹 초대회장인 연강 박두병 회장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두산연강예술상은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연강의 뜻을 이어
젊은 예술가들의 가능성과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상입니다.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넓혀 가기 위해
노력하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일은
두산연강재단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가진 힘이 어느 때보다 커진 요즘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 가는
젊은 예술가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수상하신 김상훈, 조익정 두 분께
이번 수상이 앞으로 예술 활동의 든든한 응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2026년 10월 13일

DOOSAN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제정의 뜻

두산연강예술상은 두산그룹 창업의 초석을 다지고 인재양성에 힘써온 연강(蓮崗) 박두병 초대회장의 뜻을 이어 공연·시각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두산의 의지와 생각을 담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후보자 자격

공연·시각 분야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 40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예술가

선정과정

심사위원 선정 → 후보 추천 및 심사 → 수상자 확정

상금 및 부상

공연예술부문

수상자 1명 (팀)

상금 3천만 원

공연 제작 지원 (2028년)

시각예술부문

수상자 1명 (팀)

상금 3천만 원

전시 지원 (2028년)

두산 해외 레지던시 3개월 입주 지원 (2027년)

2026 제17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공연예술부문 김상훈

심사위원 강량원 (연출가)

김옥란 (연극평론가)

이성곤 (연극평론가)

엄현희 (연극평론가)

시각예술부문 조익정

심사위원 문지윤 (큐레이터)

박가희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홍이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황신원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큐레이터)



김상훈

음이온 ummeeeonn 작가 • 연출

2026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전문사 졸업
2022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작 • 연출

2026 〈갈대밭의 에듀케이션 葦原のエデュケーション
Reed Field Education〉
2025-6 〈스 와이프!〉
2025 〈AR연계공연셋업 ;
서울왕립극단 기술융합미래 어퍼구 지원을 받았다고 가정함〉
2024 〈히라타 오리자를 위한 유튜브 스크립트〉
2022 〈비둘기처럼 걷기〉

연출

2026 〈그릭 트레제디 디지털 떼창〉
〈개기일식 기다리기〉
2025 〈유인매장〉
〈보우이즈어프레이드〉
2025-6 〈연극 안 하기 – 바보런 하기〉
2024 〈서대문구민들이 바라는 장면〉
2023-5 〈연극 안 하기 – 연극 했다고 치기〉
2023 〈연극 안 하기 – 영화관 가기〉
〈연극 안 하기 – 단단히 경고하기〉
2022-4 〈연극 안 하기 – 무대 떼다 팔기〉
2021 〈no_w_here_matters〉

작

2025 〈러브미투마로우〉
2023 〈미래의 동물〉
2021 〈화성은 수원에서 하나도 안 멀다〉
2020 〈기계장치의 신〉



2026 개기일식 기다리기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사진:두산아트센터



2025 스와이프!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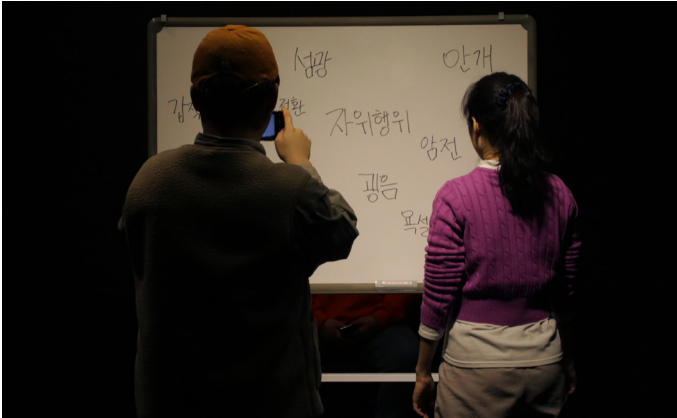


2026 갈대밭의 에듀케이션 @신촌극장, 사진:하준호



2024 서대문구민들이 바라는 장면 @신촌문화발전소, 사진:유니온씨

공연예술부문 심사평



2023 연극 안 하기 - 단단히 경고하기 @을지공간, 사진:박이분

공연예술부문 심사위원 4인은 2026년 제17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로 김상훈 작가 겸 연출가를 선정한다.

김상훈은 ‘음이온’의 작가 겸 연출가로 한 해에 여러 편의 작품을 쏟아내는 왕성한 창작열을 바탕으로, 연극이라는 매체의 경계와 한계를 극단으로까지 밀어붙이는 과감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젊은 창작자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다작이며 가장 엉뚱한 유머를 지닌 전복적인 작업을 선보임으로써 동료 창작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그의 작업은 극장이라는 전통적 공간과 관습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생생한 도발이자 전복의 연속이다. 극장의 존재 이유에 근원적 질문을 던졌던 〈연극 안 하기〉 시리즈에 이어, 이제는 디지털 공간, AR기술, 영상 플랫폼이라는 기술 기반의 무대로 질문의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히라타 오리자를 위한 유튜브 스크립트〉(2024)부터 〈스와이프!〉(2025), 〈개기일식 기다리기〉(2026)에 이르기까지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해진 동시대의 풍경 속에서 역설적으로 연극성을 모색하는 화수분 같은 창작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감한 기술적 시도와 개념적 엄밀함이 결합된 무대는 관객들로 하여금 수동적 관람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학적 감각 경험의 주체로 거듭나게 만든다.



2023 히라타 오리자를 위한 유튜브 스크립트 @신촌극장, 사진:하준호

연출가로서의 역량 못지않게 작가로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과정이 깊게 느껴진다는 점 또한 김상훈의 큰 강점이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입센의 〈페르 귄트〉, 이오네스코의 〈왕은 죽어가다〉 등 연극 고전을 동시대 연극적, 기술적 언어로 다시 쓰는 ‘다중적 말하기 전략’을 통해 동시대 연극성을 새롭게 탐구한다. 또 미래주의 연작인 〈비둘기처럼 걷기〉(2022), 〈미래의 동물〉(2023), 〈러브미투마로우〉(2025)에서는 사물과 인간이 평등하게 얹힌 다중 우주적 연결망을 보여주거나 인간과 사물, 바이러스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작용하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제시하면서 포스트 휴머니즘적 질문과 실험을 이어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사운드 그룹 다이애나밴드, 일본 극단 Dr. Holiday Laboratory와의 협업 등 타 영역과의 콜라보레이션에도 과감하여 〈갈대밭의 에듀케이션〉(2026)에서는 연극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언어와 신체성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한다.

주변이 어떠한지 개의치 않고 자기만의 관점과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며 ‘김상훈이 김상훈을 하고 있다’는 안정된 기대감을 주는 창작자이지만, 그만큼 애정 어린 우려와 제언도 함께 전한다.

그의 실험은 자본주의 바깥의 관객개발이라는 의의를 지니는 반면, 자칫 한정된 관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커뮤니티 연극

으로 제한되거나 ‘관객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세상과의 소통에 있어 조금 더 열린 태도와 유연성을 갖춘다면 탐색은 한층 깊어질 것이다. 또한 최근 연출적 실험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자기 복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작품 간 편차가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세상의 다양한 반응을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자신의 중심을 들여다보며 내실을 다지기를 바란다.

그의 실험은 단순히 형식적인 변용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연극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치열한 과정이다. 이번 수상이 작가이자 연출가인 김상훈에게 예술 세계를 더욱 넓혀갈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새롭게 마주하게 될 제작 환경을 슬기롭게 활용하여 창작자 자신과 관객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에너지로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며, 제17회 두산연강예술상 심사위원 일동은 김상훈의 앞으로의 작업을 응원한다.



조익정

2011 첼시예술대학교 석사 순수예술 졸업, 런던, 영국
2009 이화여자대학교 회화 · 판화 졸업, 서울

개인전

2016 《스팟》, 탈영역 우정국, 서울
2014 《너네가너네》,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2013 《Little Does She Know》, Even the Neck 주최,
리젠트 운하 (N1 8LD), 런던, 영국

주요 단체전

2026 《Gear: 배치전환자》, 주석모음집, 서울
2019 《사실, 시체가 냄새를 풍기는 것은 장점이다》,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Our Paradise, 아마도 멋진 곳이겠지요》,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서울
2018 《디지털 프롬나드: 22세기 산책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7 《서울 포커스 [25.7]》,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6 《푸쉬 풀 드래그》,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 서울
《서울 바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5 《굿-즈》, 세종문화회관, 서울
《Unknown Packages》, 퀸즈미술관, 뉴욕, 미국
2010 《시선의 반격》, L'appartement 22, 라뻏, 모로코
《사막의 흰 태양》, 토탈미술관, 서울
2009 《시선의 반격》,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서울
《777》, L'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파리, 프랑스

주요 퍼포먼스

2026 《무허리》, 서서울미술관 개관 특별전 SeMA 퍼포먼스 《호흡》,
서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4 《무허리》, 윈드밀 야외 퍼포먼스 페스티벌 《에어》,
썬힐빌라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120-3) 앞 골목, 서울
2017 《엘로우 스팟-솔로》, 《퍼폼2017》,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 공간 소극장, 서울
2016 《엘로우 스팟》,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 서울
2015 《Spot》, 퀸즈미술관, 뉴욕, 미국
2010 《우유 파빌리온》, 토탈미술관, 서울
2009 《Living Sculpture》, L'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파리, 프랑스



우유 파빌리온

2010, 퍼포먼스, 기록 이미지, 토탈미술관, 서울, 사진:신동석, 여인원



옐로우스팟

2016, 퍼포먼스, 기록 이미지, 플랫폼 엘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 서울, 사진:김성민, 양정훈



너네가너네

2014, 퍼포먼스, 기록 이미지,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사진:김우림, 문보람, 조익정



무허리

2024, 퍼포먼스, 기록 이미지, 썬힐빌라(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120-3)앞 골목, 서울, 사진:김태리



스팟

2016, 퍼포먼스, 기록 이미지, 플랫폼 엘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 서울, 사진:김성민, 양정훈



무허리

2026, 퍼포먼스, 기록 이미지, 서서울미술관, 서울, 사진:최형락

시각예술부문 심사평

두산연강예술상은 지난 20년 동안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온 작가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창작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다음 작업을 기대하고 지지해 온 상이다. 올해 심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상이 지닌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 다른 수상 제도와 구별되는 두산연강예술상만의 위치가 무엇인지, 작품의 완성도와 성취를 넘어 우리는 어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레지던시와 개인전이라는 기회가 작가의 다음 단계에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 왔는가 못지않게, 앞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올해 추천된 작가들은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층위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루는 매체와 연령 또한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유한 작업 세계를 만들어 온 뛰어난 작가들이었다. 그만큼 한 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서로 다른 가능성들 사이에서 긴 논의가 이어졌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지금 이 시점에 주어지는 레지던시와 개인전의 기회가 가장 강하게 다음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가가 누구인가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장고 끝에 선정된 작가는 조익정이다. 조익정은 퍼포먼스와 영상, 설치를 넘나들며 사회와 개인에 잠재한 폭력성과 관계의 불합리성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왔다. 작가는 일상에서 포착한 특정한 장면과 움직임,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감각을 서사적 구조 안에서 재구성하며, 이를 보다 넓은 사회적 경험으로 확장시켜 왔다. 강변을 배회하는 청소년 집단의 이야기와 중동의 풍경을 교차시키거나, 청소년들과의 랩 워크숍, 아파

트라는 주거 환경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극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업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를 오가며 개인적인 기억과 감정을 집단적인 감각으로 전이시킨다.

특히 조익정의 작업은 사건 자체를 재현하기보다, 몸의 움직임과 말, 관계와 리듬을 통해 이야기가 생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작가 특유의 예리한 관찰력과 서사 구성 능력은 청소년 문화와 도시 공간, 공동체 안의 긴장과 욕망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드러내며, 동시대의 삶을 감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만들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출산과 육아라는 삶의 조건 속에서 작업의 리듬은 이전과 달라졌지만, 조익정은 퍼포먼스를 위한 공간 ‘윈드밀’을 운영하며 다른 창작자들과의 협업과 공생의 방식을 모색해 왔고, 최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에서 선보인 <무허리>를 비롯한 작업들을 통해 다시금 작업의 호흡을 이어가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재개의 단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해 온 문제의식과 형식적 실험이 또 다른 방향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특히 레지던시에서의 시간과 이후 이어질 개인전은 조익정이 오랫동안 탐구해 온 움직임과 이야기의 형식을 보다 넓은 조건 속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번 수상이 작가가 구축해 온 작업 세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조익정이 우리에게 보여줄 다음 장면들을 기대한다.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2010년-2026년)

공연예술부문

2026		김상훈			
2025		전서아	2024		강보름
2023		이오진	2022		이흥도
2021		설유진	2020		윤혜숙
2019		윤미현	2018		김정
2017		이연주	2016		구자혜
				2015	 이자람
				2014	 이경성
				2013	 성기웅
				2012	 김은성
				2011	 윤한솔
				2010	 김낙형

시각예술부문

2026	 조익정	2025	 박정우	2015	 강정석	 오민	 유목연
2024	 정여름	2023	 유신애	2014	 강동주	 안정주	 이윤성
2022	 정희민	2021	 엽체 eobchae	2013	 김민애	 김영나	 차재민
2020	 김경태	2019	 김주원	2012	 김상돈	 김지은	 장지아
2018	 이윤이	2017	 권하윤	2011	 박주연	 이소정	 이재이
2016	 김희천	 박광수	 이호인	2010	 구동희	 김시연	 박미나

* 2026년 현재까지 공연예술부문 17명, 시각예술부문 31명이 수상했습니다.

두산연강재단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공헌, 두산연강재단

인재양성에 힘써온 두산 초대회장 연강 박두병 선생의 뜻을 이어
1978년 설립되었습니다.

장학 • 학술 지원

장학 지원

두산연강 장학금

1979년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생활이 모범적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두산연강 희망 장학금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 진학을
앞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합니다.

두산 꿈나무 장학금

2006년부터 힘든 환경에서 곳곳이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두산 다문화가정 장학금

2010년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두산연강 기술인재 고교 장학금

2023년부터 반도체, 원자력, 에너지, 로봇, 기계 등 분야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특별재해 장학금

2006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학술 지원

장기 학술연구비

1979년부터 순수 • 기초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 부설 연구소나 교수를
선정,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집중 지원합니다.

두산연강학술상

우리나라 의학 및 환경학 발전을 기원하고 연구 의욕을 높이기 위해
‘두산연강학술상’을 제정해 시상합니다.

시찰 사업

교사해외학술시찰

2007년부터 매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전원에게 해외 시찰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과학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 • 사회교사 해외학술시찰

1989년부터 2008년까지 교사들에게 해외 시찰 기회를 제공하여
자라나는 2세들에게 올바른 역사의를 심어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교사해외경제시찰

2010년부터 전과목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시찰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2세들에게 바람직한 경제 마인드를 심어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도서 사업

국내 중소도시 초등학교 맞춤식 도서지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도서벽지 초등학교에 도서를 지원했으며,
2021년부터는 국내 중소도시 초등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직접 선정한
도서목록을 받아 ‘맞춤식 도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도서지원

1989년부터 중국, 러시아 등 해외 동포들에게 한국어 도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는 일본, 중국, 베트남의 한국학교 등
해외 한국 학교에 도서를 지원했습니다.

어린이병원학교 도서지원

2007년 서울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33개
어린이병원학교에 동화책부터 참고서까지 다양한 도서를 지원했습니다.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두산아트센터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창작자 지원

두산연강예술상

인재양성에 힘써온 두산 초대회장 연강 박두병 선생의 뜻을 이어 2010년에 제정했으며, 시각과 공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40세 이하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DAC Artist

공연예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두산아트랩

공연, 시각예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한국 동시대 시각예술 분야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신진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합니다.

두산 해외 레지던시

시각예술 분야 창작자들의 해외 경험과 진출을 지원합니다.



연강홀

1993년 두산 창업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연강(蓮崗) 박두병 회장의 생가터에 지어진 연강홀. 2007년 리노베이션을 거치면서 620석 규모의 뮤지컬 전문극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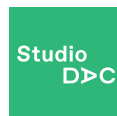
Space111

두산 창립 111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Space111.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두산갤러리

2007년 개관한 비영리 전시 공간, 두산갤러리. 서울을 기반으로 뉴욕 및 해외 여러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한국 동시대 시각예술 분야 창작자들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tudio DAC

두산아트센터의 교육 전용 공간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탐구하고, 경험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소규모 커뮤니티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두산아트센터 2026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공연예술

연강홀 Yonkang Hall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2025.10.30-2026.1.25

연극 **뽕야** 3.3-5.24

연극 **플라벙** 6.19-9.6

뮤지컬 **벳미플라이** 26.10.6-27.1.3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6

연극 **개기일식 기다리기** 1.15-1.17

연극 **경계넘기: 신진순박소영박보도 Part.1** 1.22-1.24

연극 **공룡과 공룡동생** 1.29-1.31

다원 **곡예사후련** 2.5-2.7

연극 **관찰, 카메라, 그리고 남은 에피소드들** 3.5-3.7

연극 **나의 땅은 어디인가** 3.12-3.14

여성극 **자네는 왜 그리 광장히 기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이나 3.19-3.21

연극 **슬픔과 멜랑콜리 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외로운 조지 3.26-3.28

두산인문극장 2026: 신분류학 New Taxonomy

연극 **모어 라이프** 4.29-5.17

연극 **원칙** 5.27-6.14

연극 **나는 나의 아내다** 6.24-7.12

공동기획

비밀 언덕 | 연극 **99%천재일기** 4.4-4.19

돌꽃이 | 연극 **경성의 고독한 미식가들** 7.25-8.9

DAC Artist

본주 | 연극 **경매** 9.2-9.20

이경현 | 연극 **빈자리 없음** 10.28-11.15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강보름 | 연극 **헬프 HELP** 11.25-12.13

시각예술

두산갤러리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6 1.28-3.7

DCW 2025 퍼블릭: 하루(들) 3.19-4.4

DCW 공모 기획전: HUMORS(후모어스) 4.22-5.30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3개국어 6.24-8.1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 정여름 개인전: 복수 8.26-10.17

두산갤러리 기획전 12.9-27.1.30

교육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7-2.13, 7.8-8.14

두산인문극장 강연 4.6-6.29

두산아트스쿨: 미술 4.9-4.30, 11.5-11.26

두산아트스쿨: 공연 8.18-8.21

두산아트센터 투어 9.21-9.22

Studio DAC: 아트 클래스 3.25-6.24, 10.7-12.16

공모

공연예술

DAC Artist 1.5-1.22

두산아트랩 공연 5.4-5.28

시각예술

두산 해외 레지던시 4.28-5.8

두산아트랩 시각 9.29-10.9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11.17-11.27

HELLO TOMORROW

우리가만드는건, 단순한기술의혁신이아닙니다.

에너지의한계가없는내일,

산업환경의한계가없는내일,

첨단기술의한계가없는내일입니다.

두산은오늘도, 세상의기대를넘어

한계가없는내일을위한도전을이어갑니다.

DOOSAN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
26

두산연강예술상

